

밤재터널 개설 예비 조사 면제

순창군민의 50년 숙원사업이었던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면제대상사업에 극적으로 반영돼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밤재터널이 포함됐다.

밤재터널은 순창 인계면~쌍치면 구간 24km, 총사업비 1,153억원에 달하는 국도 21호선 구간이다.

이로써 시급을 요했던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올해 사업추진을 전제로 적정성 검토는 물론 기본계획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착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반영은 매년 연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오가며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순창군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정부 예타면제에 확정됐다.

순창군, 사업추진 전제 올해 기본계획 수립

확보 활동을 펼쳐온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순창군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숙주 군수는 "밤재터널 구간이 이번에 정부 예타면제대상사업에 포함

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환영한다"면서 "순창군민이면서도 밤재고개에 가로막혀 정음을 주 생활권으로 생활해야 했던 쌍치, 복흥 주민들이 순창군민으로 하나되어 결속력을 다지고 순창발전이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제역 선제대응 총력태세 '청정임실 지키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임실군이 구제역 확산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방역소독 초소를 중심으로 소독감파 등 긴급 방역태세에 들어갔다. 임실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이동차량이 많아 자칫 구제역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군은 안성 구제역 발생 직후부터 긴급 SMS를 발송,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과거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인 지난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 비상연락체제 유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버스터미널, 마을입구 등 귀성객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제역이 발생하



면 지역 축산농가의 재정적 타격이 큰 만큼,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심축이 발견되는 즉시 읍 면 및 군 상황실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메주는 역시 순창메주' 흡소핑 인기몰이

순창메주가 흡소핑 인기몰이를 하며, 순창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장류산업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국내 유명 흡소핑 3사를 통해 순창메주 판매방향이 총 10회에 걸쳐 방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방송을 통해 순창메주 5만 세트 판매를 목표로 총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셜커머스 및 개인 주문판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번 방송이 인지도와 유통망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순창메주는 청정지역 순창에서 지역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100% 순창군 생산공과 100% 전일염인 최고급원료를 사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김재진 장류사업소장은 "순창메



주에 대한 관심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의 우수한 재료로 명품 메주를 생산하여 순창이라는 브랜드 우수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설 연휴 무료 개방

남원시는 설날과 광한루 600년 기념해 따라 설날과 설 전·후일 3일 동안 남원의 대표 관광지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한다.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분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것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함으로써 관광객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된다.

광한루원은 보물 281호인 광한루와 춘향사당, 견우지녀의 애뜻한 사랑이 서려있는 오작교, 월매집, 춘향각 등

의 볼거리가 있고, 춘향VR체험관, 그네타기,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제기차기, 등의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춘향이야기를 만남의장, 연약의장, 이별의장 등 총 5마당으로 테마화하여 조성된 곳으로 향토박물관, 동헌, 옥사정, 월매집, 옥중춘향을 볼 수 있으며 율놀이 등의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민들에게 평이근민의 시정철학을 이환주 남원시장이 소통을 펼치고 있다

'평이근민' 시정철학 실천

이환주 시장, 시정 설명회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이근민(平易近民)의 시정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시민들과 눈높이 소통을 펼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주전면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시정설명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 불편한 점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묻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 있다.

시정설명회에는 실과소장과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동행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제기된 민원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고 있다. 덕분에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워 읍면동 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설명회에는 매회 100~200여명이 참석해 상황을 이루고, 28일 열린 동충동 시정설명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해 회의실이 비좁아 복도에까지 주민들이 차지했으며, 시정설명회 내내 자리를 떠나는 주민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이환주 시장은 "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시정 설명회에 참여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묘역과 시설물 환경을 말끔히 단장했다

국립임실호국원, 국립묘지 참배객 대책 수립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묘역과 주변 시설물 환경을 말끔히 단장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국립묘지 참배객 편의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교통편의제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제1층령당, 제2층령당 등 소방종합 정밀점검 완료하고 유관기관인 임실경찰서, 임실119 안전센터, 35사단과 6탄약창 등 민·

관·군과 협조하여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번 우회도로로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호국원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임실역-임실터미널-호국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5만15천여명의 성묘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직원은 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저소득층 주택개량 추진

남원시는 사회적 주거약자인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올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비와 복권기금 50%씩 총 5억 1,600 만원으로 129가구에 가구당 최고 4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되며, 지붕·벽체의 구조보강,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전기·가스시설 등 주거안정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대상이다.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3억1,600 만원을 들여 82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광인 남원시 건축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수가 시급한 주택에 대해 먼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 남원IC 입구에서 남원국도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남원지사, 남원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설 연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홍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안전운전 플래카드 홍보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띠착용 피케팅 활동 등을 펼쳐 운전자들의 설 연휴 기간 안전한 도로행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설 연휴기간 배려와 양보로 안전운전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교통문화 사전 분위기 조성 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